

Daniel: 4 – Sermon Notes

Title: “An exceptional group of men”

Scripture: Daniel 1:17-21

Date preached: June 30th 2024

Scripture: Daniel 1:17-21

17 As for these four young men, God gave them knowledge and skill in all literature and wisdom; and Daniel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

18 Now at the end of the days, when the king had said that they should be brought in, the chief of the eunuchs brought them in before Nebuchadnezzar. 19 Then the king interviewed them, and among them all none was found like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therefore they served before the king. 20 And in all matters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examin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astrologers who *were* in all his realm. 21 Thus Daniel continued until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17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자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18 왕이 정한 3 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19 왕이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해 보니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20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자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황제 원년까지 그곳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Review

Today we are going to finish chapter one of Daniel. Before we do so let's briefly review what we spoke about last time.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best known by their Babylonian names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ve been transported to Babylon. The year is 605 BC. They were taken in the first of three waves of Jewish people carried off into exile. This means that they were either members of the extended royal family, nobles or the best and brightest that Judah had to offer. As we noted the standards set for those taken in this first wave were very high. King Nebuchadnezzar wanted to take the “cream of Judah” first.

To be chosen for the three year training candidates had to be, young, without blemish, good looking, smart, eager to learn and teachable. Daniel and his friends met all of these requirements. This should alert us to the fact that these were young men of a very high calibre.

When they arrive in the city of Babylon they are all given new Babylonian names. This as we noted before was part of their forced assimilation process. The idea was to completely immerse them in all things Babylonian.

Give them local names, clothe them in the style of the local people, feed them Babylonian food and saturate them with the literature, religion and culture of Babylon. We have many examples throughout history, and even today how effective such an immersive program can be.

We might use the example of seminaries or bible colleges today. These are the places tasked with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Christian leaders and pastors. Now of course there are some good ones, but sadly there seem to be fewer and fewer of these every year. The standard of seminaries and the training they provide is declining at a rapid rate. It i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so many young pastors today are liberal and “wishy washy.” Men without real passion and conviction who do not stand firmly upon the rock of scripture. The reason for this is simple. They are the products

of liberal, “wishy washy” seminaries. It's very difficult to resist the ideology of the place in which you were thoroughly immersed for 3 or 4 years. If for example you are trained to believe that the bible contains errors, or that we should ignore the bible regarding its teaching about homosexuality what is the outcome? The mostly likely outcome is that you come to accept what you are taught as truth, and will convey this to your congregation. Hence the sorry state of the church across much of the Western world today.

No doub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unhappy that their Yahweh honouring names were changed to names that paid homage to Babylonian deities. But they accepted their new names without complaint.

However when it came to the food they were being offered they decided to make a stand. This food remember was the best on offer. It was literally the food and drink served to the king. So as I pointed out last time their objections were not based upon the food itself. It was not that they didn't like the look, taste, smell or texture of the food. The reason they objected was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be defiled by the food. That's the key take away here. They did not want to consume things that would corrupt, pollute or stain them. Let me explain why this food would defile them.

- Firstly it was not kosher. The Babylonians ate things that were prohibited to the Jews. So eating things like pork would result in them breaking the laws God had given them.
- Secondly the meat eaten by the Babylonians would have been offered to pagan gods before it was consumed by humans. Daniel did not want to eat meat that had been offered in thanks and praise to a demon.
- Thirdly the wine the Babylonians drunk was not diluted with water. This made it much stronger than the wine the Jews were used to. So Daniel was perhaps concerned that drinking strong wine might lead to a loss of self control or drunkenness.
- Fourthly and finally was what eating the king's food symbolized. Food in the ancient world was often used to cement friendship, or forge a union between two parties. A covenant for example would always be sealed by sitting down and sharing a meal. So Daniel, in declining the king's food is saying that he does not want to seal an agreement or affirm his friendship with Babylon.

Daniel approaches Ashpenaz the chief of the eunuchs to ask that they may be excused from eating the king's food. We are told that he enjoyed a good relationship with this man.

Ashpenaz is open to Daniel's view but concerned with how the king may respond if Daniel and his friends become sick or look unwell. He after all was responsible for their well-being.

Daniel then goes to the steward who is directly responsible for their food and proposes a ten day test.

During this ten days trial they will eat only vegetables (foods grown from seeds) and drink only water. The steward agrees to the trial period. At the conclusion of the test they are examined. Much to everyone's' surprise Daniel and the others look better and fatter than those who had eaten the king's food. As I said last week this is an act of God's divine intervention. He blessed these men who had sought to honour Him with good health and a ruddy complexion. The steward is satisfied and agrees to permanently put them on a vegetable based diet.

Today we will conclude chapter one by seeing how else God blessed these loyal and faithful men.

오늘은 다니엘서 1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즉 그들의 바벨론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빌론으로 끌려 갔습니다. 그

때가 기원전 605 년입니다. 유대인들의 유배가 세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그들은 첫 번째로 잡혀 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왕족의 일원이거나 귀족 출신으로 유다에서 가장 훌륭하고 총명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유배자 그룹에게 적용된 기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 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으로 잡아 갔습니다.

3 년 동안 훈련 받을 후보자로 선택하려면 젊고, 힘이 없고, 잘생겼고, 영리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들이 매우 뛰어난 자질을 지닌 젊은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도시에 도착하자 그들에게 새로운 바빌론식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강제 동화 과정 forced assimilation process 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을 바빌론식 삶의 방식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바빌론식 옷을 입히고, 바빌론 음식을 먹이고, 바빌론의 문학, 종교, 문화에 폭 잡 가게 합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몰입형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나 성경대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와 목회자를 훈련하는 임무를 맡은 곳입니다. 아직 몇몇 좋은 학교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해마다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교육 수준과 그들이 제공하는 훈련의 질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오늘날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진보적 liberal 이고 “우유부단한, 치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wish washy”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채 진정한 열정과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진보적이고 “우유부단한, 치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학교의 산물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3, 4 년 동안 철저히 몰입한 상태에서 훈련시키는 단체의 사상에 맞서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무시해야 한다고 믿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배운 거짓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처해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이름이 바벨론 신들을 경외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음식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의 모양, 맛, 냄새, 질감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것들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이 그들을 더럽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 첫째, 코셔(Kosher)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금지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어기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 둘째, 바빌론 사람들이 먹은 고기는 그들이 먹기 전에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신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 셋째, 바벨론 사람들이 마신 포도주는 물에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마시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아마도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자제력을 잃거나 술에 취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 넷째,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음식은 종종 우정이나 두 당사자 간의 연합을

굳건히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언약은 함께 있어서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바벨론과의 우애를 부인합니다.

다니엘은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다가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니엘은 궁중 대신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스부나스는 다니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으면 왕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려했습니다. 그들의 건강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후 다니엘은 음식을 담당하는 청지기에게 가서 10 일 동안의 시험을 제안합니다.

이 10 일간의 시험 동안 그들은 야채 씨앗에서 자란 식품과 물만 마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테스트 제안에 동의합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그들은 검사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쓰는 그들에게 건강과 좋은 혈색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만족했으며 계속해서 야채 중심의 식단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젊은이들을 어떻게 더 축복하셨는지 살펴보고 1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ntroduction – Job interview

Today's account features a job interview. So let's begin by talking about job interviews. When was the last job interview you had? It may well have been a long time ago? How did it go? Have you ever had a really bad interview experience? Do you think you interview well? Or are job interviews something that make you feel all nervous and sweaty! No matter how badly some of your previous job interviews went I'm sure non of them were quite as bad as the two examples I am about to give you.

The first story involves a man named Dave. He was scheduled to have an interview at 10 am on Tuesday morning. Unfortunately he had had some difficulty finding the correct building. So by the time he finally found the right location it was 10:22 am. He was 22 minutes late for his interview! Rushing up the stairs he burst into the reception and began to apologise profusely to the receptionist. After listening to his apology for about a minute she raised her hand and politely told him that the interviewer was not available. Poor Dave was crestfallen. He was only 22 minutes late! Please, he begged, could he be given a second chance. It was at this point that the receptionist told him that as it was Monday he was actually one day early. Dave, not surprisingly didn't get the job!

The second story involves a woman named Sally. Sally had an interview in the city at 2pm. She lived out in the city suburbs. She figured that it was about a 25 minutes by bus from her house to office where she would be interviewed. So, just to be safe she left home at 11:45am. Plenty of time to make the journey she thought. It was a very hot summer's day, so she decided to travel in casual shorts and carry her smart skirt in a bag. She planned to change in the toilets before the interview. However things didn't go to plan. The bus was 35 minutes late. By now Sally was beginning to panic. She realised that she would not have time to get changed before the interview. She knew that her casual shorts would not make a favourable impression. What could she do? She had no choice but to change on the very crowded city bus. As she struggled to remove her shorts and put on her skirt a number of people looked at her as if she was crazy. One woman in particular gave her a sternly disapproving look. As she passed this woman to get off the bus Sally angrily said, "What's it got to do with you."

When she arrived at the office she was told that she would have to wait. The person conducting the interview had also been held up in the city traffic. Sally instantly relaxed. However ten minutes later when the interviewer finally walked in Sally got quite a shock. Her interviewer was the woman she had shouted at on the bus. Sally, not surprisingly didn't get the job!

These are both true stories of interviews did not go well.

But that won't be the case for Daniel and his friends. Their interview as we shall see went very well.

Let's get into today's account.

서론 - 취업 면접

오늘의 본문에는 취업 면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취업 면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꽤 오래전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면접 경험이 인종았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면접에 능숙하시나요? 아니면 면접을 볼 때 긴장하고 째째하시나요? 여러분의 면접 경험이 아무리 나빴을지라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예만큼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Dave 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화요일 오전 10 시에 면접 약속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면접 장소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마침내 그 장소를 찾았을 때는 벌써 오전 10 시 22 분이었습니다. 그는 면접에 22 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 접수처로 달려가 접수원에게 열심히 사죄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브의 사죄를 1 분 정도 듣고 나서 손을 들어 정중하게 면접관이 자리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데이브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단지 22 분 늦었을 뿐인데 그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때 접수원은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하루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데이브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Sally 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Sally 는 오후 2 시에 시내에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내에서 떨어진 교외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인터뷰 장소까지 버스로 약 25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기 위해 넉넉하게 오전 11 시 45 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캐주얼한 반바지를 입고 정장 스커트를 가방에 넣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35 분 늦게 왔습니다. Sally 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전에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반바지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반바지를 벗고 치마를 입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미친 듯 쳐다봤습니다. 특히 한 여성은 그녀에게 암하게 반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Sally 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에게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예요?”라고 회를 냈습니다.

Sally 가 면접을 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면접관도 교통 체증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Sally 는 즉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10 분 후 마침내 면접관이 들어왔을 때 Sally 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면접관은 그녀가 버스에서 역정을 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샐리는 당연히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인터뷰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실화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들의 인터뷰는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7 As for these four young men, God gave them knowledge and skill in all literature and wisdom; and Daniel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

Last time we looked at how Daniel and his friend's vegetarian diets made them “better and fatter” than the other students. God was blessing them with robust good health as a reward for their loyal commitment to Him. The blessing however did not stop with just having healthy physical body. We learn here that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also rewarded by God with enhanced mental or academic skills. He allowed them to become exemplary students.

God we read “**gave them knowledge and skill in all literature and wisdom.**” The literal rendering of what these men were given may be translated as, “*skill in every kind of book.*” When we think back to our own school or university days we would readily confess that we did not excel in every subject. Perhaps we were great at languages or mathematics, it might be that it was in music, science or art that we shone. It's unlikely that we excelled in every subject we studied. But that is what we read here about Daniel and his friends. They were able to take in, understand and then wisely apply all of the different information they were being fed.

This is an even more impressive feat when I tell you that this would mean being literate in three different languages; Aramaic, Assyrian and Akkadian. Aramaic was the ordinary language of business and diplomacy. Assyrian was the official court language and the language in which histories and dedications were written. Finally, they would also need to be able to read and write Akkadian. This was the old sacred tongue, the language which the Babylonian religions used. So school life would have been hard for Daniel. A great deal was expected of these young men.

It is worth us taking a moment to imagine what their schooling would have been like. As you can imagine the Babylonians thought that their beliefs, values, philosophies and religious ideas were superior to everyone else's. Even today when educationalist get together to discuss pedagogy it is difficult to judge who has the best, or most effective educational system. The Babylonians would not have needed to join such a discussion. They maintained that their educational model was the most effective. This means of course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not being presented with a balanced or broad range of teachings. They were not being asked to evaluate material from a variety of sources and make up their own minds. Far from it, the education they were receiving was akin to state propaganda or brainwashing. The expectation was that at the end of three years training these students would be converted to the Babylon way,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much of the wisdom of the Chaldeans was closely allied to their wicked pagan idolatry and superstitions. Anyone exposed to such things had to be very careful lest they too begin to be swayed by, or adopt some of these practices. So Daniel and his friends had a delicate balancing act to perform. They had to learn and take in what was needed and necessary for the work they were to do whilst also staying faithful to Yahweh.

Daniel we also read here **had understanding in all visions and dream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we need to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se ancient people. Although they were not as primitive or uninformed as we like to imagine there was much that lay beyond their ability to understand. Therefore they sought explanations for these things in the supernatural or in superstition. The ancient Egyptians for example believed that their dreams revealed fragments of the future. They also believed that the gods wanted to deliver important messages through dreams to important people like the Pharaoh. As a consequence people who had an ability to interpret dreams or visions were highly prized. They could be a tremendous asset to the nation. If for example a dream foretold of a future famine preparations could be made. Or if a dream foretold of an enemy invasion defences could be erected. So the fact that Daniel has been given this gift in abundance means he will be a valuable asset.

17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지난 주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채식 식단이 그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게 만들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 메삭, 아벳-느그에게 탁월한 정신적 또는 학문적 능력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 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문자 그대로 “ 모든 종류의 책에 대한 기술”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시절을 돌아켜보면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어나 수학을 잘했거나, 음악, 과학,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 가지의 다른 언어인 아람어 Aramaic, 아시리아어 Assyrian, 아카드어 Akkadian 에 통달한 것은 아주 대단한 성취입니다. 아람어는 비즈니스와 외교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언어였습니다. 아시리아어는 공식 궁중 언어이자 역사와 한정문이 기록되는 언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카드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종교에서 사용하던 고대의 신성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배움의 과정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많은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잠시 그들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빌론인들은 자신들의 신념, 가치, 철학 및 종교적 사상이 다른 어느 나라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육학자들이 모여 교육학을 논의할 때 누가 가장 우수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러한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육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균형 잡힌 광범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평가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교육은 국가 선전이나 세뇌와 비슷했습니다. 3 년의 훈련은 이들을 바빌론식에 동화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갈데아인들의 지혜 중 많은 부분이 그들의 사악한 이교 우상 숭배 및 미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노출되면 누구나 이러한 관행에 휘둘리거나 따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오케 산실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미래 직업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습득해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을 통해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이 미래의 일부분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들이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기근을 알려주는 꿈은 기근에 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혹은 적의 침입을 예언하는 꿈이라면 방어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귀중한 자선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As we know God made fairly frequent use of dreams and visions throughout the bible to communicate to various people. In the Old Testament God used them to reveal His plans, to further His plans, and to put His people in places of influence. Some of those who received dreams and visions include, Abraham (Genesis 15:1) Jacob (Genesis 28:10-17): Joseph (Genesis 37:1-11) Samuel (1 Samuel 3) and Solomon (1 Kings 3:5).

In the New Testament God continued to use dreams and vision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as unavailable elsewhere. Specifically, God used visions and dreams to identify Jesus and to establish His church. Some of those who God communicated with in this way were Zacharias (Luke 1:5-23), Joseph (Matthew 1:20; 2:13), Ananias (Acts 9:10), Peter (Acts 10:9-15) and Paul who received several during his missionary career (Acts 16:9-10, Acts 18:9-11, 2 Corinthians 12:1-6).

The question often asked today is whether God still uses dreams and visions to communicate with

people. In answering this question we need to use some caution. We must acknowledge that God can use whatever means He chooses in which to speak to us. That means He may on occasion use dreams. I read an interesting online post dating back to 2017 from the Open Door organisation. It reported a former Muslim from the West Bank, a man named Ismail. This is what he said,

"Most Muslims come to the Lord through visions and dreams, not through evangelists,"
(www.christianpost.com/news/persecuted-christian-most-muslims-come-to-faith-visions-dreams-not-evangelists.html)

So I don't want to diminish the power or effectiveness of dreams and visions. God clearly still uses them today on certain occasions. Therefore perhaps the question should be, is this common or even God's preferred way of speaking to us? To this I would answer with a resounding, no. We now have the bible. That is the most natural and obvious way that God communicates to us today. So if you want to know God's will on an issue hit the bible, and not the pillow. Let us read on.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걸쳐 꿈과 환상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계시하고, 그분의 계획을 추진하며, 그분의 백성을 영향력 있는 위치에 두기 위해 꿈과 환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창 15:1), 야곱(창 28:10-17), 요셉(창 37:1-11), 다윗(삼상 3 장), 솔로몬(열왕기상 3:5) 등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꿈과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신 사람들 중에는 사가랴(눅 1:5-23), 요셉(마 1:20, 2:13), 아나니아(행 9:10), 베드로(행 10:9-15) 등이 있고, 바울은 선교 사역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환상을 보았습니다(행 16:9-10, 행 18:9-11, 고린도후서 12:1-6).

오늘날 자주 묻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재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사용하시는 지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때때로 꿈을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Open Door 조직에서 2017년에 게시한 흥미로운 온라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안 지구 출신의 전 무슬림이었던 이스마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은 전도자가 아니라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www.christianpost.com/news/persecuted-christian-most-muslims-come-to-faith-visions-dreams-not-evangelists.html)

그래서 저는 꿈과 환상의 능력이나 효과를 축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특정한 경우에 분명히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다시 한다면 꿈과 환상이 일반적이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선호하시는 방식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자연스럽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꿈을 꾸기 위해 잠을 청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 Now at the end of the days, when the king had said that they should be brought in, the chief of the eunuchs brought them in before Nebuchadnezzar.

We pick up the story here at the end of the three years of training (**end of the days**). Daniel and his friends had studied hard. It is now time for them to be tested. At the end of most periods of study we must sit an evaluation or exam. Those who have been teaching us want to see what we have learned, or not learned. In Daniels case they want to find out whether he and his friends have become sufficiently qualified to work in the king's palace and serve the Babylonian government. Their examiner will be non other than King Nebuchadnezzar himself. We don't know how many students went through the three year course of study, but it's interesting that Nebuchadnezzar personally took the time to examine them. Why did he not leave this task to a trusted underling? Well, the successful new graduates were to become his personal advisers. Therefore the king wanted to be sure he was

getting the very best. This was why he wanted to meet and question them personally.

He commands Ashpenaz, his chief eunuch to bring all the students before him for an interview. This would have been a nerve jangling experience. There was much at stake. Those who passed the interview would get nice comfortable government jobs. Those who failed might be sent out to do much less savoury labour. Let us find out how the interview went.

18 왕이 정한 3 년 동안의 수련 과정이 마□□ 궁중 대신은 그들을 느부갓네살왕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3 년의 수련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험을 칠 시간입니다. 학습 기간이 끝나면 보통 평가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배웠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궁에서 일하고 바벨론 정부를 섬길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 시험관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3 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 그는 이 일을 믿을 만한 부하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성공적으로 졸업할 사람들은 그의 개인 조언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들이 최고인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려고 그들을 만나 보고 질문을 해보길 원했습니다.

그는 궁중 대신인 아스부나스에게 모든 학생들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 일 것입니다. 이 면접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은 정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겠습니다.

19 Then the king interviewed them, and among them all none was found like Daniel,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therefore they served before the king.

Of all the young men he interviewed four clearly stood out. They were the top students in their graduating class. The implication here, which will be borne out shortly is that these four men are far superior to all the others. They were not just slightly better, they were hugely superior.

You will note here that they are again referred to by their Hebrew names. Why does the writer do this? It may be used as a device to remind the reader why these young men had excelled. It was because of God whose name their Hebrew names bore witness. God had chosen to bless these faithful men, and this was why no one else was found who even matched let alone excelled them.

Their reward for being excellent students was that they received work in the palace serving in the king's court. This was a position of great rank and prestige. That these foreign men taken away as slaves should rise to such a high position would not have gone unnoticed. In fact it provoked envy and jealousy in those who had been overlooked or ignored. They resented the fact that these young Jewish men were given such positions. Later on this jealousy will be manifested in the action they take against Daniel and his friends.

19 왕이 그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해 보니 다니엘과 하니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다른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왕이 대면한 모든 청년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마친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약간 나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다시 언급되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렇게 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 젊은이들이 왜 뛰어난지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려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히브리 이름이 증거하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자들을 축복하기로 선택하셨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월등했던 이유입니다.

우수한 실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궁전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와 특권을 지닌 자리였습니다. 노예로 잡혀온 외국인들이 그토록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된 사실을 모두가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지위에 오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젊은이들에게 그런 지위가 주어진 것에 분개했습니다. 이러한 질투는 그들이 나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대하는 적대적인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20 And in all matters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bout which the king examined them, he found them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magicians *and* astrologers who *were* in all his realm.

The king has determined that these men are clearly very smart. He has determined to appoint them to positions in his court. However as he continues to question and examine them he is startled to discover just how good they really are. Perhaps he imagined that eventually there would be a deficiency in their education and learning. That if he questioned them intensely it would eventually become apparent that there was something they didn't know. With Daniel and his friends however this doesn't seem to be the case. Whatever question or query he throws at them they are able to answer. We are told in fact that they were ten times better than all the other magicians and astrologers he had in his realm.

This is of course a hyperbolic statement that simply indicates that they were many times better. We note here that they were compared with **magicians** and **astrologers**. Depending on your bible translation you may see these individuals referred to as “soothsayers,” “diviners,” “conjurers,” “enchanters” and “mediums.” The word used here for “**astrologers**” (*ashshâph*, ash-shawf) is used only in the book of Daniel (here and in 2:2) to refer to Babylonians. This specialized vocabulary is probably employed to indicate that these elite class of men were seen as being very important in Babylonian society.

Whatever term we choose for them today we are talking about men who employed magic and other occult practices to try and control and manipulate reality, and predict what lies in the future. The Babylonians were famous for their insistent belief that their many gods left clues for understanding humanity's fate. These clues could be deciphered if only you had the right key to the code.

They genuinely believed that by studying the flight patterns of birds, the entrails of sacrificed animals, and other natural phenomena, people could predict the future.

So some have been led to ask whether this means that Daniel and the others had studied and mastered the occult arts utilised by these people. Were they ten times better at conjuring up the spirits of the dead?

No, of course not and here's why. As we saw earlier in chapter one they refused to eat the king's food. The reason for this was their fear that it would defile them. They believed that it would make them stained, polluted or unclean before God. Let us assume here that the defilement in view was the breaking of the “kosher laws” God gave to Moses. They did not want to break these laws and disobey God. Given their commitment to the kosher food laws it seems highly unlikely that they would take up occult practices which were also forbidden by God (Deuteronomy 18:9-14). Can we really imagine them thinking to themselves, well we better not eat this non kosher food but it's alright if we try to communicate with demons.

So I think we can safely assume that they were not highly skilled in occult practices. How then, or in what way were they so much better than the other advisors Nebuchadnezzar had? It is perhaps best to conclude that they excelled in offering wise or sage advice to the king. John Gill in his commentary puts it as follows,

“These young men were able to give more pertinent answers to questions put to them, and better advice and counsel when asked of them.”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Daniel's insight into the future through dreams and visions came directly from God. God we can fully and completely trust. The demons who were informing the Chaldeans are wicked liars by nature. So whose advice and counsel would be far superior? The answer is obvious.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by looking at verse 21.

20 왕은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물어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열 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이 젊은이들이 매우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었습니다. 왕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현명한 지 깨닫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들이 학문적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무지한 부분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무슨 문제를 던지든 그들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왕을 섬기던 다른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들보다 열 배나 더 낫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것은 네 젊은이들이 몇 배나 더 나았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술사** magicians 나 **점성가** astrologers 와 비교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성경 번역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을 "점쟁이", "요술사" 및 "영매자"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점성가" 로 사용된 단어(ashshaph, ash-shawf)는 바벨론인을 가리키기 위해 오직 다니엘서(여기 그리고 2:2)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특정 용어는 아마도 이들 엘리트 계층의 남성이 바빌론 □□□□□□ □□□ □□□□□ □□□□ □□□ □□□□□□□□□□ .

오늘날에는 이들 중 어떤 용어를 선택하든 현실을 통제하고 조작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마술과 기타 신비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인들은 그들의 많은 신들이 인류의 운명을 아하하는 단서를 남겼다는 집요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코드에 대한 올바른 열쇠만 있으면 이러한 단서를 해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새가 날아가는 형태, 희생 제물인 동물의 내장, 기타 자연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인들의 신비술을 연구하고 숙달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들의 능력이 10 배나 나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 장 초반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럽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코셔 율법 kosher laws” 을 어기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코셔 율법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고려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신비술을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신명기 18:9-14).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거부했던 그들이 정말 악마와 소통하는 것은 관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신비술을 악하고 고도의 숙련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다른 조언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뛰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왕에게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탁월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존 길(John Gill)은 그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질문에 더 적절한 답을 줄 수 있었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나은 조언과 권고를 줄 수 있었다.”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한 다니엘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대아인들에게 정보를 준 마귀들은 천성적으로 악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조언이 훨씬 더 낫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21 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 Thus Daniel continued until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The first chapter of Daniel begins and ends with important date brackets. Let me remind you of verse number one.

In the third year of the reign of Jehoiakim king of Judah,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came to Jerusalem and besieged it.

This bracket opens then with the year of 605 BC. This was the year of Nebuchadnezzar's conquest of Judah. It was also the year in which Daniel,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taken in exile to Babylon.

The date bracket closes as we read here with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King Cyrus also known as Cyrus the Great, Cyrus II or Cyrus the Elder was ruler of the Persian empire that conquered Babylon in 539 BC. In 538 BC Cyrus passed a decree saying that the Jews could return to their land (2 Chronicles 36:22–23). So the bracket closes on the year 539 BC.

So let's do a little addition. It's 66 years from 605 to 539. We don't know exactly when Daniel was born. I made the case in the introduction that it may have been around 623-620 BC.

Let's for arguments sake say it was 620 BC meaning he was 15 years old when he was taken into exile. By 539 BC he was 81 years old! What an amazing career Daniel had. All those years working in the civil service. He began in 608 BC and finished in 539 BC! It's worth noting in passing that Daniel continued to receive revelations from God after his career as a government official ended (Dan 10:1). He may have retired from the civil service but God was still able to use him.

Daniel presents us with a timely reminder that our work in God's service does not really have an expiry date. If you are mentally and physically capable you should continue to serve God as a loyal and faithful servant until you die. Maybe the kind of service you offer changes but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be done. So I have to say that I'm always perplexed when pastors, Sunday school teachers or bible teachers say they are retiring or stepping down. I'm flabbergasted when I hear them say things like, "I've served my time," "done my duty and now I'm going to retire." No, that's not the place of a servant to decide.

So Daniel enjoyed a lengthy career working in the Babylonian civil service. Today lengthy careers in the civil service are not uncommon. But in the ancient world to survive and thrive through multiple dynasties was some feat. A new king typically liked to clear out the old and bring in new people whom he trusted. That Daniel survived for so long attests to two important things. Firstly that he must have been a very wise and gifted administrator. He was clearly someone that everyone saw the need to keep around. And secondly that it was God's will and desire that he continue serving for so long in this capacity. It was God who put him in place, enabled him to excel and allowed him such a long and prestigious career.

And so we come to the end of chapter one. The focus throughout this chapter has been on the reason for Daniel's remarkable success. Why was it that this foreigner, taken by force to a strange pagan land had prospered? The answer to that question has been revealed in what we have examined in chapter one. Simply stated it is that He purposed in his heart to remain faithful to God no matter

what came. Nothing could move him from his loyal commitment. For his devotion and obedience God blessed him. Without this necessary background we might doubt, or at least question what is to follow. But now, knowing Daniel as we do we can be sure that God did reveal to him amazing things and that he recorded them accurately.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king Nebuchadnezzar's first dream.

21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황제 원년까지 그곳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장은 중요한 연도를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1 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다왕 여호아킴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1 절은 기원전 605 년으로 시작합니다. 이 해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한 해였습니다. 그 해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해였습니다.

다니엘서 1 장의 마지막 절인 21 절은 **고레스 왕의 첫 해**라고 밝히고 끝납니다. 고레스 대왕Cyrus the Great, 고레스 2 세Cyrus II 또는 Cyrus the Elder 라고도 불리는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9 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기원전 538 년에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하 36:22~23). 따라서 고레스 왕의 첫 해는 기원전 539 년입니다.

그럼 약간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05 년부터 539 년까지 66 년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서문에서 아마도 기원전 623-620 년경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유배 당시 15 세였다고 추측하면 기원전 620 년에 태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539 년에 그는 81 세였습니다. 다니엘의 경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기원전 603 년에 시작하여 539 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부 관리로 일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리로서의 경력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 10:1). 그가 정부 관리직에서 은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제로 만료일이 없다는 사실을 시적절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정산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분야가 바뀔 수는 있지만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 성경교사들이 은퇴하거나 사임한다고 하면 늘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내 섬김의 시간이 끝났어”, “내 소임을 다했고 이제 은퇴할 거야” 같은 말을 들으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정부 관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무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일반적으로 옛 왕을 섬기던 자들을 제거하고 그가 신뢰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임용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첫째, 그가 매우 현명하고 재능 있는 관리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곁에 두고 싶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가 이 직분을 맡아 오랫동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두시고, 그가 탁월할 수 있게 하시고, 그토록 길고 명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1 장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 전체의 초점은 다니엘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 이유입니다. 강제로 낯선 이교 땅으로 끌려간 외국인으로서 그가 번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1 장에서 살펴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충실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필수적인 배경 지식 없이 진행된다면 다니엘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that I have drawn from today's study.

저는 오늘 공부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Are you prepared for your big interview?

I spoke earlier about job interviews. We read about how Daniel and his friends impressed the king when he interviewed them. Job interviews can be scary things, this is especially true if it's a job you desperately need, really want, or just think would be ideal for you. In such interviews the pressure to do well and convince the interviewer that you are the right person is immense. You want to answer the questions well and demonstrate through your answers that they should pick you. If however you fail you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and try again. In the intervening period of time you can plan out your answers or work on any areas of weakness. But as you may be aware there is an interview of sorts in which you get just one chance to impress.

I am referring to the judgment that all believers will one day have to face. We refer to this interview as the “Judgment Seat of Christ.” In 2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0 we read,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ach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

At this judgment every believer will have to give an account of their lives and service to the Lord Jesus. This will include all the decisions we have made including those concerning issues of conscience. Now please don't confuse this judgement with sin. That matter was settled by Christ's sacrifice on our behalf, and our faith in Him. This means that for all true believers our sins are forgiven, and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We are not being judged on our salvation.

At the judgement seat the Lord Jesus will inspect our works. He will carefully examine us in order to determine the following. What did we do with the resources God gave us? How faithful were we? Were we yielded to the Spirit, seeking to honour Christ and further His work in the world? If we have done well in these areas we will be rewarded. But by contrast did we neglect our opportunities to serve the Lord? Did we squander the resources God gave to us. If so, we will suffer loss of reward.

So it's an opportune moment as we sit here this morning to engage in a little self-examination. How do you think you will fare in this final job interview? How does your spiritual resume look? Time perhaps to seek the Lord in prayer and ask for the guidance and insight of the Holy Spirit. How might we, from this moment on live lives more in tune with what God wants and more focused on serving Him.

1 여러분은 최종 면접을 잘 준비가 되셨나요?

앞서 취업 면접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과 접견했을 때 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취업 면접은 두려운 경험일 수 있는데, 특히 그 직업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정말 원하거나, 자신의 이상적인 직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터뷰에서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이 책임자임을 면접관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질문에 잘 응답하고 싶고, 그 대답을 통해 그들이 당신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러나 실패하면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서 답변을 작성하고 약점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회가 단 한 번 밖에 없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언젠가 직면할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the Judgment Seat of Christ”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0 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힘이라

이 심판에서 모든 신자는 자신의 삶과 주 예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심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 심판을 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를 주의 깊이 조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원으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리스도를 영회롭게 하고 그분의 사역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성령께 순종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열심을 다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등한히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원을 낭비했는가? 그랬다면 우리는 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최종 면접을 어떻게 치를 것이라고 □□□□□? 당신의 영적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기도로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와 통찰력을 구할 시간을 가져 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데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 The necessity of study

Daniel and his friends had been specifically chosen because they were men of intelligence who showed an aptitude for study. It was this, with God's help of course that led to their great success. This combination resulted in them being much superior to both the other students in the program and those already enlisted in the king's service. Daniel and his friends appreciated the necessity of study.

We hear a great deal today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long learning.” This refers to the ongoing, voluntary, and self-motivated pursuit of learning for either personal or professional reasons. More simply it means continuing to study new things throughout life. There are many benefits to our mental health from continuing to study and learn new things as we age. We often find it quite interesting and exciting to embark on new learning adventures. It's fun to open up our minds to new discoveries; photography, the art of the renaissance, ancient Egypt, the secret life of insects or Mediterranean cuisine. We often are quite quick to sign up to online course in subjects that peak our interest.

So, I'm sometimes puzzled as to why Christians are not always that interested in studying more about their faith. For example, no one ever asks me for additional bible studies, book recommendations, good pastors to listen to online, podcasts that are informative or helpful and websites to visit. I never see people bringing books or magazines that they think may help others to church to share. Now these things may go on and I am simply unaware of them taking place. Perhaps all of you are diligent students of the Word. Hopefully every evening you immerse yourself in God's revelation. Maybe you are enrolled in an online study program or are taking a course presented on YouTube. I certainly hope this is the case.

We are you see to be ready and prepared to give a defence for what we believe when asked. We are expected as part of our service to God to be able to answer people's genuine questions and explain to them clearly about the faith we have in Christ. To do this well requires training and knowledge. It requires in other words our study and effort. Now unlike Daniel we don't necessarily need to be ten times better (smarter) than the world around us. Though that would be very helpful. But we do need to be able to give a clear, accurate and concise explanation of what we believe and why. For this reason may we all appreciate the necessity of study.

2 공부의 필요성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적성을 가진 총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그들은 훈련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과 이미 왕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해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인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부여된 동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배우면 정신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종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여정은 매우 흥겹고 신나는 모험입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 르네상스 예술, 고대 이집트, 곤충의 신기한 삶 또는 자중해 요리 등등. 우리는 종종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온라인 강좌에 재빠르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는 지 가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도 저에게 추가 성경 공부, 추천 도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좋은 목회자, 유익한 팟캐스트, 가볼 만한 웹 □□□□□□□□ □□□□. 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나 잡지를 가져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폭 잠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YouTube 에서 제공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사람들이 진정으로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하려면 훈련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공부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달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10 배나 더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두는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